

“유병언 타살 아니다...6월 2일 이전 사망 유력”

경찰, 수사 발표... 변사현장 CCTV영상 판독 불가

유씨 마지막 행적·사망 원인 등 의혹 끝내 못밝혀

세월호 실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 원인은 타살이 아니며 사망시기는 6월 2일 이전이 유력하다고 경찰이 최종 결론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한 달여 간 각종 과학수사 기법과 연인원 4000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동원해 수사를 벌이고도 마지막 행적, 사망원인 등 그동안 제기된 의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해 유 전 회장의 사인 등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9일 순경경찰에서 유 전 회장

변사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유병언의 사망에는 범죄와 관련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또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나 그의 동선 파악에도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6월 2일 이전일 가능성이 크다고만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유 전 회장 시신에 대해 2차례 부검을 한 결과, 골절 등 외상과 체내 독극물 등이 발견되지 않아 범죄 관련성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

다. 사인이나 사망 시점은 밝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 시기와 원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궁하기 위해 국과수, 고려대학교, 전북지방경찰청 등의 법 공충학 기법을 통한 실체·분석을 한 결과, 사망 시점을 시신 발견 시점보다 10일 전인 6월 2일 이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만 추정했다.

변사 현장 등의 유품 등에 대한 조사에서도 기존에 밝혀졌던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우선 유 전 회장의 옷에 대한 손상흔적과 충격흔적 감정 결과 예리한 도구나 둔기 등에 의한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속옷에서도 외부 충격 때 발견되는 섬유 손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유 전 회장 동선 파악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변사 현장

의 CCTV 영상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영상을 남겨받은 국과수는 “해상도가 낮아 판독이 곤란하다”는 회신만 보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30분경 학구 삼거리 쪽에서 유 전 회장 사체 발견 현장으로 누군가 걸어간 영상을 확보, 국과수에 유 전 회장이 맞는지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결국 유 전 회장의 사인이나 사망 시점과 함께 유 전 회장의 마지막 동선마저도 밝히지 못한 채 수사 마무리가 된 것이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도 유 전 회장 사인과 시기, 마지막 행적 등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유 전 회장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세월호 승무원 2명

구조활동 참여 정황 확인

세월호 승무원 일부가 목포해경 123정에 의해 구조된 뒤 다른 승객 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9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9차 공판에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탑승한 이경 김 모(22)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는 123정이 세월호에 두 번째로 맞대어 객실 유리창을 깨고 5~6명을 구조한 것과 관련, “누가 유리창을 깬느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직원(해경) 두 명이랑 승객 두 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승객으로 추정되는 두 명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장문을 건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일 대학생들 한복체험 조선대학교 국제어머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한 일본 대학생들이 19일 광주향교에서 한복복과 다양한 한복체험시간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찰 “CCTV 영상 속 남성 1명만 찍혀”

김수창 전 지검장 음란행위 의혹 수사

피의자 정확한 얼굴 확인 위해 국과수 분석 의뢰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남성 1명만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한 남성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 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지검장이 애초 주장한 것과는 달리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로 지목할 만한 다른 남성은 없었으며 화면에 등장하

는 남성이 김 지검장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 지검장은 당시 산책을 하던 중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목욕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으며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영상에 근거하면 김 지검장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동생의 이름을 대는 거짓말을 한 데 이어 또 거짓 증언을 한 셈이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김 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3일 0시 45분경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당시 바지에서 15cm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고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 지검장을 한 번 더 소환할 지,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지는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연향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6, 해질 19:16, 달 뜨기 01:11, 달 지기 15:28

오후부터 많은 비

한강고 오후에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전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광주·전남 예상강수량 50~150mm)

◇지역별 날씨 (°C)

광주	호린뒤 비	21/26	보성	호린뒤 비	21/26
목포	호린뒤 비	21/25	순천	호린뒤 비	23/28
여수	호린뒤 비	22/26	영광	호린뒤 비	21/26
나주	호린뒤 비	21/26	진도	호린뒤 비	21/25
완도	호린뒤 비	22/26	전주	호린뒤 비	21/27
구례	호린뒤 비	22/28	군산	호린뒤 비	21/26
강진	호린뒤 비	21/26	남원	호린뒤 비	20/26
해남	호린뒤 비	21/26	홍산도	호린뒤 비	21/24
장성	호린뒤 비	21/25			

◇비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서부	남해	남해

◇생활지수

식중독	45
운동	10
빨래	20

◇물때

목포	여수
밀물 09:37, 썰물 03:30	밀물 05:23, 썰물 11:25
22:56, 15:34	18:20, 23:38

◇주간 날씨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3/27	21/28	21/29	22/27	22/26	23/27	22/27

담양 테지움파크 경매 들어갈 듯

방문객 급격 감소

매출 부진까지 겹쳐

채무 50억원 못갚아

호남 최대 규모 테디베어 박물관 ‘담양 테지움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가 매출 부진 끝에 경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19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부근에 지난 2012년 들어갔다. 3000만원에 이르는 ‘빅베어(곰인형)’와 4500만원에 달하는 ‘반달곰가족’ 등 230여 종 2000개에 달하는 곰인형은 단번에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테마파크는 호남 최대 규모(8만2644㎡)로 곰인형이 있는 전시실과 회전목마 등이 설치된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을 갖추고 지난 2012년 8월 영업을 시작했다. 3000만원에 이르는 ‘빅베어(곰인형)’와 4500만원에 달하는 ‘반달곰가족’ 등 230여 종 2000개에 달하는 곰인형은 단번에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이 TV, 영화 촬영지로 주목받아 한류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광주에서 차로 30분 거리라는 점도 테마파크의 전망을 밝게 했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 2012년 8월 개장 초기 6개월간 방문객이 7만7천명을 기록한 뒤로 방문객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지난해 테마파크 방문객은 10만 749명으로 목표치(연간 2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방문객은 4만 6955명으로 지난해(5만6099명) 보다 1만 명가량 줄어드는 등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테마파크 측은 휴가철 피서객 대부분이 숙박 시설과 편리한 교통을 갖춘 테마파크를 선호하는 것과 전시 시설 특성 상 한번 관람을 하고 나면 재관람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이 매출 부진의 한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테디베어 박물관 하면 ‘제주’라는 선입견과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여행객 감소도 매출 부진에 한 몫을 했다.

테마파크 관계자는 “서울의 캐리비안 베이나 나주충흥골드스파, 여수디오션 리조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소규모에다 가격 경쟁력(어린이 1만2000원, 성인 1만5000원)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제주와 광주 다음으로 큰 규모의 테디베어 박물관이라는 장점을 살려 나름대로 치밀한 준비 끝에 운영에 들어갔지만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기관 '제2010-04호'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안심입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보증 조합사 - 2014. 08. 18. 현재

공제조합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제조합이 보증한 상조회원의 납부액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

GS (주)글로벌상조 1661-4221	금강종합상조(주) 1577-3411	금호상조는 사랑입니다 (주)금호상조 1566-4428	대영라이프웨이 1588-8511	고객만족 우선주의 대전상조(주) 1577-4007	나의 라이프 파트너 THE LIFE & 1544-5528	(주)두레문인 1577-3566	대한민국고급재현위원회 상조사업소 (주)보통상조 1566-3585
부모사랑 상조 1566-0114	삼성문화상조(주) 053-253-0006	성심과 정성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상조(주) 051-816-8260	문화사랑 상조 (주)삼성문화상조(주) 1577-4144	재부추 우정까지 최고 신하는 최사 (주)새부상조 1588-3971	어머님께 힘이 되는 든든한 상조회사 (주)비엔라이프(주) 1588-4412	한정보증금 상조보증금 연금저축기금 (주)아름다운라이프(주) 1599-4409	어머님 걱정 덜어드리기 위한 상조 (주)연합상조 1566-0425
존버한 오늘, 편안한 내일 (주)영남상조 1588-4425	에 온 1577-3750	(사)우정라이프 (주)우정라이프 1544-3144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억 (주)엘라이프(주) 전국상조연합 1600-1258	"가족 사랑의 또 다른 시작, 따뜻한 것은 고귀한 기쁨과 사랑을 함께 합니다. 유한상조(주) 1544-5779	부모를 모시는 최고의 기쁨, 부모님을 생각하는 최고의 마음 (주)제일상조 1577-4464	좋은 세상대경 1588-9048	백양상조 (주)태양상조 1588-0393
행복하고 소중한 가정에 보탬이 되는 (주)한효라이프 1577-2324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한 (주)해피상조 1599-5766	내일을 준비하는 (주)효경라이프(주) 1577-7808	행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주)효원상조 1588-8873				

※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조합사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를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보증공제증서와 공제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상조보증공제조합 www.ksmac.or.kr ☎ 대표전화 : 1600-1226